



SINCE 1899

# Oropi School

be all you can be | whaia te matauranga

# Stories from our families



1334 Oropi Road, RD3, Tauranga 3173

Phone: 07 543 1479

Office Email: [office@oropi.school.nz](mailto:office@oropi.school.nz)

Website: [www.oropi.school.nz](http://www.oropi.school.nz)

Facebook: [www.facebook.com/OropiSchool](http://www.facebook.com/OropiSchool)





Sihwan and Dahyn mum  
(Eunyoung Yoo)  
31st January 2018 to current

### 시환이 다현이의 오로피스쿨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조기유학 4년차엄마이자 오로피스쿨 2년차학생인 시환,다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의 오로피스쿨로 오기 전에 도심 속에 있는 큰 규모의 학교를 다녔어요. 이전 학교도 좋은 학교였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곤충과 식물을 좋아하고 땅과 하늘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의 적성에 딱 맞는 학교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학교가 오로피스쿨이었고 오로피스쿨의 2년차 학부모로서 아주 만족하며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로피학교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는 길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큰길에서 학교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저희 유학생들은 학교까지 가는 스쿨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길이 너무 좋아서 가끔 드라이브겸 기분전환하러 학교까지 아이들을 태우고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 ESOL 수업

오로피스쿨은 모든아이의 ESOL수업을 1:1로 하고있어요.

인터네셔널담당 카리사선생님께서서는 각자 아이들의 성향과 관심사에 맞게 수업을 준비해주시고 부모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셔요.

수업내용은 'seesaw'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바로 사진을 올려주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집에서도 확인할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후 아이들과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수있어요.



가끔은 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베이킹도 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주셔요.

저희 아이들은 이 날을 정말 좋아해서 베이킹하기 전날은

설레여서 잠을 못잘정도랍니다.^^

## 학교 생활

오로피스쿨은 타우랑가에서 비교적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속하다 보니 선생님들도 획일적인 수업이 아닌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수 있어서 좋아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같은 반 같은 학년의 친구들뿐 아니라 전학년 아이들의 이름을 대부분 다 외우고 기억해주며, 고학년 저학년 구분없이 모두들 다 어울려 잘 놀고 잘 지내요.

학교 위치상 주변 농장이나 과수원을 하는 자녀들이 많아서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각자 키우는 애완동물을 가져오는 깜찍한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이외에서 학교내에 있는 온수수영장에서 전교생이 수영수업을 하고,

매년 농장을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가축을 데리고 나와 등급을 매기고 허수비를 만드는 컴페디션도 하고 다채로운 게임을하는 calf club & pet day라는 행사가 열려서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쌓을수도 있어요.

이처럼 오로피스쿨은 다른학교와는 다른 정적이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자라날수있는 특별한 학교로서 강력추천합니다.^^



Kyumin mum  
(JUNG HYUN OH)  
15th October 2018 - 5th July 2019

뉴질랜드의 유학을 마음 먹고 처음으로 생각한 학교가 오로피 스쿨이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규모가 작은 학교라, 아직 영어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피스쿨의 많은 장점을 알고 있어서일까?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타우랑가에서 규모가 큰 학교에 입학할 해서 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밀려오는 미련을 버릴 수 없어서 오로피 스쿨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

역시 예상은 적중했고, 우리 아이는 오로피의 장점을 몸소 겪으면서 교우관계나 영어실력이 눈에 보이게 향상되어 갔다. 특히 이술수업은 주 4회 일대일 수업으로 이루어져, 따로 학원이나 튜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한 영어학습량에 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께서서는 항상 웃어주셔서 교실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격려와 관심은 기본이다. 그리고 때때로 생길 수 있는 친구와의 트러블이나 학교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터내셔널 담당 카리사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끝으로 오로피 스쿨의 자연환경은 우리아이의 동물사랑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다. 사마귀, 나비, 귀뚜라미, 도마뱀 등 관찰학습과 더불어 직접 키워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한다. 한예로 우리아이가 귀뚜라미를 키우겠다고 갑자기 교실에 들고 갔는데,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칭찬해주시면서 반친구들과 함께 관찰해보자고 말씀해주시기도 했다.

행복하고 유익한 유학생활을 생각하신다면 오로피스쿨이 최고라고 추천드리고 싶다.



Aidan and Aria's mum  
(Na Yeon Kwon)  
6 December 2018 - current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부터 오로피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되면서,

처음 타우랑가에 있는 오로피라는 작은 시골 학교를 선택하고 준비하던 과정이 새록 새록 떠오르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가족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또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초조해 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도 불과 몇 달 전에 겪은 일이라 크게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적응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그 마음은, 오로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첫 날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오로피 학교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2학년이 다니는 딸의 경우 오로피 학교 첫 날부터 아이를 꼭 안아 주며 받쳐주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희 딸은 친구들과 그룹을 이루며 하루하루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과 그룹을 이루는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저희 아이에게 매우 호의적이며, 주말과 방학 때 아이들이 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4학년의 아들의 경우는 딸보다는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이라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이 곳 아이들과 점심시간에 같이 뛰어다니며 급 속도로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생일파티에 서로 오겠다고 할 정도로 반에 잘 적응을 하고, 절친도 생겼습니다.

이 곳의 남자아이들은 뛰어 놀면서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아이가 뭘 준비와 마을 가집만 되어있다면 분명 이 곳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담이지만 나이기 운동화에 구멍이 나서 한달에 한 번씩 바꿔주어야 할 정도로 뽀뽀합니다.

한 가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다가 오겠지...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겠지... 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다가가서 그 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때를 만들 수 있게 격려해 주며

부모님께서도 그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면 분명 아이들은 이 곳 오로피 아이들과 금방 부비며 친해 질 것입니다.

오로피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순수하며, 아시아에 대해 오픈 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은, 아직 왕따나 기분이 상할 만한 일 들을 이곳에서 겪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것이 운이 좋아서 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오로피 아이들과 교우 관계가 좋아서 인 것도 같습니다. 친한 키워친구들이 그룹처럼 지켜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절친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한국에서 온 것을 배려하여 항상 먼저 학교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한번은 학교시간에 오로피 학교로 아이들을 픽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픽업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아이들을 돌봐 주셨고, 또 다른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차를 몰고 달려 오셔서 타이어를 갈 동안 제 옆에 저 대신 모든 일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제가 만난 저희 아이들 친구의 부모님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타우랑가에 많은 학교들 중 오로피 학교는 특히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곳임에 분명합니다. 아이답게 뛰어 놀고, 아이답게 생각하며 아이답게 자연스럽게 클 수 있는 곳에서, 저희 두 아이가 생활하고 있음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유학 생활도 행복이 가득 하실 길 기원합니다.





Sunwoo and Joonwoo's mum  
(Moonsoo Kim)  
22 July 2019 - current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영 (가명), 한국 학년으로 초 5학년, 박진수 (가명), 한 국 학년으로 초 2학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소중한 두 아이를 2019년 7월 22부터 시작하는 3텀에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위치한 오로피 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기 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오로피의 이술 선생님 이 좋다는 친구의 말만 듣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술 선생님이란 유 학 온 친구들을 앞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저의 첫째 딸은 한국에 있는 2년 동안 영어공부를 안하고 영유도 안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유 1 년에 영어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첫째가 걱정이 되었죠.

오로피 첫째 날, 카파하카 (마오리 전통 춤) 로 전교생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환영인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에선 없는 풍경입니다. 오로피 학교에 미로 같은 숲도 있고 놀이터도 2개가 있으며 운동장, 각 반에 장난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 둘째 아들은 미로 숲을 가장 좋아합니다. 맨날 흙투성이가 되 어 집에 오지요. 오로피 학교 학생들은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첫 째 날부터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딸은 첫날부터 반 친구에게 잘 지내고 싶다는 편지도 받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닌지 일주일 후부터 뉴질랜드 친 구들과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어는 부 짝 늘겠죠. 이젠 친구들과 뛰어 노느라 점심 도시락도 남기고 옵니다. 이술 선 생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부족한 영어를 아이들 레벨에 맞게 1:1로 가르쳐 주 십니다. 물론 숙제도 내주십니다. 이 수업이 아이들 영어에 많이 도움이 됩니 다. 학교 버스가 있어서 학교 등하교시간에도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닌지 얼마 안 되어 캣 패스티벌을 했는데, 전교생이 하교 후에 고양이 분장을 하고 흠에서 춤추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답니다. 마치 디스 코텍 같이 천장에 미러볼이 돌아가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몸을 흔들며 스트레 스를 날려버린 날이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술 선생님께서 사진도 보내주십니다. 뭐든 열심히 챙겨주시고 알아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고마 운 선생님이십니다. 여기는 한 반에 같은 국적의 외국학생을 2명이상 받지 않 습니다. 영어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욱 빨리 늘 수 있습니다. 2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첫째 딸도 6주 동안 듣기 능력은 더욱 형성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오로피 학교를 선택하여 아이들이 적응도 잘 할 수 있었고 호의적인 친구들 덕에 영어도 더 많이 늘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신 이술 선생님이 계셔서 어려 움 없이 학교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욕심이 점점 생겨서 우리 아이들 이 키위들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





James, 11 years old

My name is James and I am 11 years old  
I have been cropi school 2 years  
when I was first time at school  
I felt excited because they were  
doing math I enjoyed camp and  
friends I improve English and  
teacher I enjoyed to play with  
friend, Korea has lot of car  
but new zealand has little bit car  
ESOL teacher was really good soft I  
miss cropi school I will be sad but I'm coming  
back at holiday.



Sihwan, 10 years old

My Name is Sihwan and  
I am 10 years old I have been  
at cropi school for 2 year  
at cropi there is big flat ground  
and gully with lots of trees  
Some thing that I have improved  
is my reading and writing  
at cropi I have made lots of  
friends and I'm proud for my  
writing I enjoyed garden to  
table because I harvest food and  
cook, my ESOL is one teacher  
and one student so I can learn many.





Rachel, 10 years old

Hi? My name is Rachel and I am ten years old  
When I first arrived at opipi school I felt  
excited I enjoyed to play at the gully.  
Because in south Korea it doesn't have any  
gully of sand playing and swimming pool and discovery  
shed at school the classroom is very different  
with Korea school because classroom is  
separated. I think my English level is  
developed more than learning in Korea.  
I miss my dad and granddad. of  
course my friends and my teacher.



Alice, 9 years old

My name is Alice.  
I am nine years old.  
I have enjoyed the playing  
in the playground, New Zealand  
and class is like separate  
and Korean class is like 4  
floor. I miss the yummy  
food Korea. I like  
discovery because I like  
hammering.



Sunwoo, 10 years old

Hi, I'm Sunwoo and I'm 10 years old. I'm come from Korea. When I first arrive to school, I felt tired because of the long journey. I could speak little English. Now, I can speak in front of the whole class. I

miss my **phone!** and friends.

Something I like <sup>about</sup> Oropi School is

I like the playground. I made friend

in Oropi school. The thing I most

enjoy <sup>about</sup> school is lunch time. I can

eat and play in lunch time.

I am happy here!



Aria, 7 years old

Hi my name is Aria and I am 7 years old. when I first arrived at Oropi school. I felt happy because I made friends straight away.

I have got better at reading and writing.

I enjoy running and Esol's garden to table, gully.

I miss my Dadd in Korea.





Elsa, 10 years old

Hi my name  
 is Elsa. I'm come to  
 Oropi in 2019. I was  
 super excited. I come  
 from Korean then china <sup>then</sup> New Zealand.  
 My english is perly excellent  
 because I went to English when  
 in china. Before I went to Oropi  
 I went matau. There was huge  
 different to Oropi. Oropi was much  
 smaller and Matau is much bigger school.  
 I enjoy Discovery New  
 things in Oropi and of course I  
 love the Disco.  
 Somthing that I improved is  
 Math.



Joonwoo, 8 years old

My name is Joonwoo and I'm 8 years old. I'm from  
South Korea and came to New Zealand to learn English. I  
speak some English <sup>and</sup> but now I speak many English  
words. When I came to Oropi school <sup>for the</sup> first time  
I ~~was~~ shy but I <sup>have</sup> ~~get~~ stronger than before.  
I miss every thing from home. I like Oropi  
school because I play outside. Also I had  
made lots of friends in New Zealand. It's  
glad to come to New Zealand.









be all you can be | whaia te matauranga

### Contact Us

Phone: 07 543 1479  
Office Email: [office@oropi.school.nz](mailto:office@oropi.school.nz)  
Address: 1334 Oropi Road, R D 3, Tauranga 3173  
Website: [www.oropi.school.nz](http://www.oropi.school.nz)  
Facebook: [www.facebook.com/OropiSchool](http://www.facebook.com/OropiSchool)